

평가기준에 의해 그 자리에서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고 이 채점결과를 그 자리에서 집계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광고 대행업체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다.

#### 4. 자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낙농자조금의 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모금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귀중한 자조금이 짜임새있게 집행되었다고 본다.

총자조금중 TV광고에 투입되는 부분, 신문광고에 투입되는 부분,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

에 투입되는 부분 등 여러분야에 걸쳐 투입하여야 할 최적비율을 분석하여 자금이 투입됨으로 인해 낙농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자조금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은 자조금을 대신 낙농농가에 대한 일종의 보답인 동시에 자조금 집행부서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타축종의 자조금사업 시행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5. 자조금사업 결과의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이번 자조금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국민건강, 유아건강, 노후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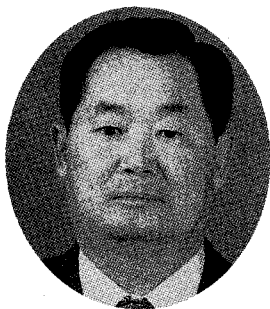
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하철에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 포스터를 부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중산층에게 우유의 우수성이 집중적으로 홍보되었고 또한 SBS 방송매체의 ARS를 통해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에 필요한 돈이 모아졌다는 것이 이번 자조금사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낙농육우협회에서는 낙농자조금사업 원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자조금이 모금되고 이를 이용한 우유의 소비촉진 홍보가 더 많이 전개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

(필자연락처 : 02-573-7822)

## 낙농자조금사업! 우리 낙농인은 해냈다



박 응 규

낙농자조금운영위원(해태유업)

우리 해태 낙농가들은 3개월 반이런 기간의 원유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98년도 10월 7일 해태유업이 최종부도를 내면서 낙농가들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들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 낙농자조금은 꼭 필요하다는데 인식하고 뜻을 모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낙농자조금을 거출하여 낙농자조금추진위원회에 보냈다.

**지** 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1999년도였다. 우리나라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및 모든 모조

분유수입제한조치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데도 우리 낙농가들은 아직도 여유가 있으며 시간이 많이 남은 줄만 알았다.

그러나 '98년도 중순경부터 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았다. 송아지는 낳아서 버려야 했고 도태우는 개 값도 안되는 가격을 받아야 했다. 여유가 있었고 자신 만만하던 우리 낙농가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해태 낙농가들은 3개월 반이란 기간의 원유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98년도 10월 7일 해태유업이 최종부도를 내면서 낙농가들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낙농업을 생업으로 10년, 20년동안 묵묵히 일 해오던 낙농가는 사료값을 감당 못하여 목장을 정리하여야만 하는 농가, 아침저녁으로 착유하던 소를 팔아 사료값을 갚아야 하는 농가 등 참으로 그 사정을 알아볼 때 너무나 가슴이 메이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었다.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사와 싸워 가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각오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되었다. '98년도 10월 21일 우리 낙농가들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 낙농자조금을 거출하기로 뜻을 모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낙

농 자조금을 거출하여 낙농자조금추진위원회에 보냈다.

그 당시 그 어려운 시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낙농가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및 추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자조금을 모으자는 뜻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말은 쉽고 실천이 어려운 것이 돈에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내라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자조금은 우리가 생산한 원유를 마음놓고 판매 할 수 있게끔 모든 홍보와 우리 건강에 우유가 좋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 주자는 것이다. 낙농에 조예가 깊으셨던 분들은 '99년도 상반기에 우유 파동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생각외로 성수기인 4월 5월에 우유소비가 둔화되었고 각 유업회사에서는 우유가 남기 시작하였다. 이에 낙농자조금추진위원회에서는 즉각 우유 홍보에 나섰고, 자조금 홍보가 8월부터 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우유가 부족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찾아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앞서서 노력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한때 경기가 호황이라고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일수록 닥쳐올 비수기를 염려하여 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낙농인은 해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규모의 낙농자조금을 조성하여 낙농인 스스로 우유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했다. 처음 시작이 어려웠지 이제는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여 우리 우유의 우수성을 탄탄하게 홍보하여 세계의 유제품이 몰려와도 우리 낙농인이 걱정없이 낙농 산업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모읍시다.

낙농가 여러분! 나 하나쯤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낙농자조금 조성은 또다시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가 낙농자조금을 성공시켜 후대에 우리나라 낙농자조금 조성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해냈다는 긍지를 심어 줍시다. 낙농가 여러분 모두 낙농자조금조성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낙농자조금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시다. ☺

〈필자연락처 : 0339-356-0073〉

